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신길중학교

고층 아파트 옆 작은 '집'

이현우
㈜이집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
대지면적	9,999.20m²
건축면적	4,414.14m²
연면적	9,859.01m²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15m
건폐율	44.14%
용적률	95.48%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제이텍구조
설계	이현우
설계담당	양기욱, 박정민, 손수만
시공	피앤피건설
기계·전기설계	소정이엔지·조은기술단
설계기간	2018. 5.~2019. 2.
시공기간	2019. 5.~2021. 2.
공사비	197억 원
건축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진효숙

삼각지붕이 돋보이는 신길중학교

길 건너에서 바라본 학교

복잡한 도시에서 학생들은 획일적이면서도 거대한 스케일의 아파트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학교만은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작고 낮은 모습의 '집'이기를 바랐다.
신길중학교는 이러한 바람을 담아 이전의 마을처럼 오밀조밀한 건물과 마당이
어루어진 우리 기억 속 '집'의 모습으로 설계되었다.

©건축사

ⓒ진효숙

ⓒ(주)이집건축사사무소

ⓒ진효숙

ⓒ(주)이집건축사사무소

좌 · 상 **붉은 벽돌과 하얀 외벽의 학교**
좌 · 하 **운동장에서 바라본 동측면**

ⓒ(주)이집건축사사무소

좌 · 상 **다양한 중정뷰**
좌 · 하 **교실과 바로 연결되는 마당**
우 **햇볕이 가득한 중정**

ⓒ진효숙

ⓒ진효숙

상 **일반 교실**
하 **교사연구실**

ⓒ진효숙

ⓒ진효숙

ⓒ진효숙

상 **다목적강당**
하 · 좌 **시청각실**
하 · 우 **다양한 입체적 동선**

신길중학교는 4층 박스형 건물이 아니라
야트막한 언덕에 지어진 테라스하우스처럼 설계되었다.
교실 크기로 분절된 공간은 개별적인 집이 조화롭게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곳곳에 입체적인 동선을 따라가다보면 볕을 쬐고,
바람을 쬐는 공간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은 낮고 넓게 펼쳐진
신길중학교에서 감성을 꽃피운다.

ⓒ㈜이집건축사사무소

옥상마당뷰

집보다 더 '집' 같은 학교

신길중학교의 설계 의도는 단순하고 역설적이면서도 명확하였다. 학교 부지를 둘러싼 주변의 장소적 특징이 너무나 뚜렷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지나 고민은 없었다. 신길중학교는 신길뉴타운 안에 입지한다. 학교 주변을 20층 이상 규모의 고층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곳의 학생들은 이와 같은 획일적이고 거대한 도시 스케일의 아파트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는 이와 반대로 '집'처럼 위압적이지 않은 작고 낮은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에게 '집'처럼 작고 친밀한 것에 대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학교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계획 초기부터 견지한 우리의 태도이다.

아이들에게 학창 시설이란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유예된 시간이 아니다. 신길중학교 교가의 한 구절, '꿈을 찾아 행복 찾아'처럼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만끽해야 하는 생의 한 구절이다. 그래서 학교는 기능중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치 '집'처럼 정서적인 편안함을 주는 생활공간이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집'의 모습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신길뉴타운 이전의 마을처럼 오밀조밀한 건물과 마당이 어우러진 우리 기억 속 '집'의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진효숙

상 삼각지붕이 돋보이는 신길중학교
하 붉은 벽돌과 하얀 외벽의 학교

배경

과거 신길동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1990년대까지 달동네가 있던 곳이며, 드라마의 배경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군인들이 살고 주둔하였던 지역으로 한때는 공군본부와 해군본부를 위시한 군인시설의 요람이었다. 그래서 학교 부지 북측에 해군 군인아파트인 '바다마을 아파트'가 있고, 그 뒤로 해군회관이 있다. 2006년경부터 시작된 신길뉴타운 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유입되었고, 중학교가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신길중학교의 신설이 확정되었다.

학교 부지는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신길7구역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되었다. 어렵게 마련된 부지라 크기나 형태 등의 불리한 조건을 따질 게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학교 부지는 고층 아파트들이 4면을 에워싼 가운데 형태는 건물 배치에 좀 애매한 폭과 비율의 '기울어진 사각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부지는 경사진 연결녹지를 사이에 두고 전면도로보다 2~3m 높았고, 부지 북

측 인접 아파트 부지의 레벨은 더 높아서 1단 내지 2단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책정된 학교 공사비 내에서 이 옹벽을 전면적으로 재설치해야 하는 공사비 부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신길중학교는 24개 학급과 1개의 특수학급 규모인 일반 공립중학교로 2018년 5월 설계공모를 통하여 계획이 시작되었다.

개별적인 집들의 집합체

우선 학교를 휴먼 스케일의 집 크기로 잘게 나눴다. 학교는 교실을 하나의 기본 모듈로 갖는다. 학교의 구성 및 프로그램과 현실적인 경제성·시공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실은 설령 크기나 형태는 바뀌더라도 일정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학교의 기본 모듈이다. 그 교실 단위 한 개를 하나의 집으로 보았다.

교실 크기로 분절된 매스는 한 개의 교실이 하나의 집과 같은 느낌을 준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은 운동장을 지나 도달하는 박스형의 4층 건물이 아니라 2층 집의 모습으로 옹기종기 모인 아담한 자기 교실이길 바랐다. 거대한 사각 매스의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생소한 스케일의 흥미로운 느낌으로 다가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 중 현장 앞을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건물의 용도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학교였다는 반전을 주었다. 건물의 정체를 아는 주민도 신기한 듯 현장 앞을 오가며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고정관념은 벗어나야 비로소 정체를 드러내고, 주변과의 대비는 우리 기억 속 원초적 집에 대한 감각을 더욱 극대화하여 소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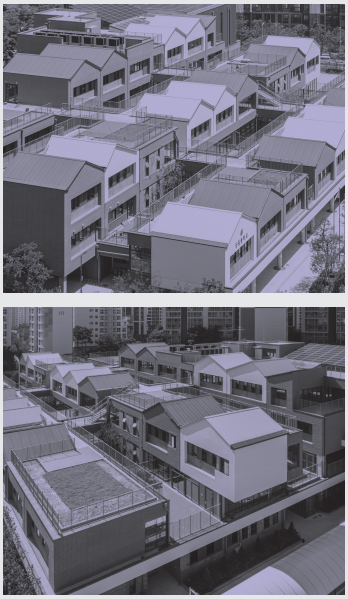
ⓒ(주)이집건축사사무소

신길중학교 계획

마을 같은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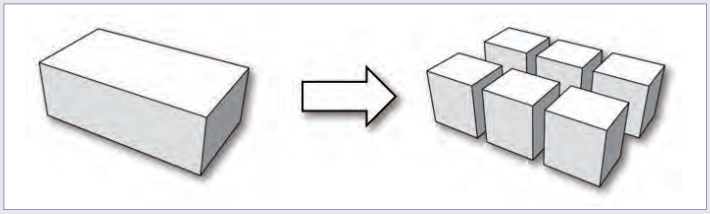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이 발현되는 중학생들에게 특히 '개별성'과 '다양성'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학교가 거대한 단일 매스나 2~3개의 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집'들의 집합체인 마을처럼 조화로운 동시에 다채로운 모습을 갖도록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삼각지붕인 집도 있고, 평지붕의 집도 있다. 교실 천장도 평천장과 박공천장으로 일률적이지 않다. 마감재에도 변화를 부여하였다. 붉은 점토벽돌과 백색의 외단열시스템, 탄화코르크보드, 시멘트벽돌 등의 마감재는 몇 가지 타입의 형태와 조합되어 다채로운 풍경을 연출한다. 마치 마을과 같은 이러한 다채로움은 주변 아파트와 대비되어 낯설면서도 친숙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다양성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공간을 표현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가치이다.

ⓒ전효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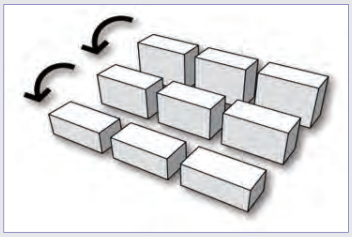


상 **하나의 마을처럼 보이는 학교**
하 **낮고 넓게 펴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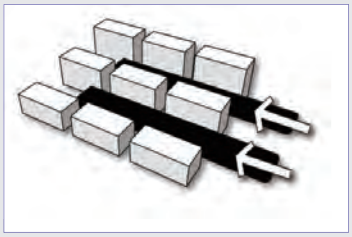
ⓒ㈜이집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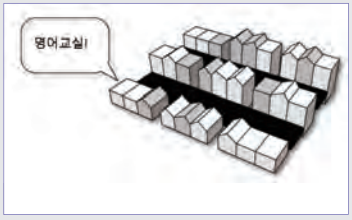
프로세스 01. 매스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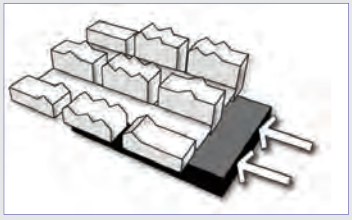
프로세스 02. 낮고 넓게 펼친 학교



프로세스 03. 가까운 마당



프로세스 04. 마을 같은 다양성



프로세스 05. 모두의 포디움

©(주)이집건축사사무소

상 길 건너에서 바라본 학교
중 교실과 바로 연결되는 마당
하 햇볕이 가득한 중정

낮고 넓게 펼쳐진 학교

신길중학교는 대지 단차에 순응하여 낮고 넓게 펼쳐져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학교 부지는 전면도로가 낮고 뒤쪽 인접 부지는 높은 야트막한 둔덕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형에 주목하였고, 주어진 조건을 '집' 같은 학교, 그리고 그 '집'들이 모인 마을이라는 콘셉트에 접목하였다. 학교 건물이 앞에서부터 2, 3, 4층의 테라스하우스처럼 배치되어 등하교 때 마주하는 학교는 마치 2층 높이의 야트막한 이웃집들과 가로수들이 늘어선 편안한 동네 길 속의 한 모습이 된다. 실제 전면도로의 눈높이에서 학교는 지형 단차의 절묘한 각도로 2층 높이까지만 보이는데, 이것은 계획 시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이다. 낮고 넓게 펼쳐진 학교는 통상적인 4층의 학교 건물이 들어섰을 때 예상되는 가로경관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가까운 마당

기존의 전형적인 학교는 운동장과 교사동으로 이분화된 공간구조를 가진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4개 층을 뛰어 내려가 운동장에 가기를 포기한다. 신길중학교에는 감수성이 풍부한 중학생들을 위하여 쉬는 시간에 좁고 긴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있는 마당으로 나가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정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학생들이 교실과 복도·도서실에서 문만 열면 볕 쬐고 바람 쐴 수 있는 마당으로 나가길 바랐다.

마당을 끼고 있는 집처럼 교실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작은 마당에는 자작나무·대나무·낙엽수·꽃나무 등도 심어 놓아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도 사계를 느끼고 하늘을 볼 수 있다. 중정들은 단독주택의 마당 정도 크기로 나뉘어 있고, 이와 같은 옥외공간은 넓은 문과 투명한 창 또는 폴딩 도어로 내부와 연계되고 확장된다. 켜켜이 중첩되어 배치된 중정과 내부공간은 내외부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가로지르는 순환동선은 각기 다른 공간적 체험을 유도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장치들은 개방성과 동시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에게 '집'의 마당과 같은 아늑하고 친밀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학교에서 옥상공간의 활용에 대한 제안은 쉽게 수용되거나 구현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학교옥상은 안전 문제로 늘 잠겨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참여설계를 통한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옥상공간을 잘 활용한 사례도 있지만, 충분한 높이의 안전펜스가 설치된 옥

상조경이 조성된 경우도 선뜻 개방을 꺼린다. 안전과 보호을 위하여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을 한 시야에 모으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감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이고, 아직도 적지 않은 이가 과거 표준설계도면에서처럼 일자형 복도에 교실이 죽 늘어선 학교공간을 은근히 선호하는 이유이다. 신길중학교는 테라스하우스처럼 옥상공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각층에서 바로 접근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서 유리하다.

다방향의 순환동선과 개방성

학교는 내외부 또는 위아래로 막힘 없는 순환동선을 가진다. 각 층의 내외부를 가로지르는 순환동선은 마치 마을의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같다. 학생들은 중정을 가로질러서 건너편 홈베이스나 교실로 갈 수 있고, 옥외 계단으로 각층 옥상마당을 오르내릴 수도 있다. 내외부에 계단과 복도가 많은데,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를 선택적으로 요리조리 다니며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로는 주변으로 열려 있어 항상 밝고 안전하다.

이처럼 획일적이지 않은 동선과 개방성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각기 다른 체험과 상상력을 갖도록 한다. 다만 양쪽으로 중정과 면한 2층의 가운데 켜 전체가 원래는 벽체 없이 열린 홈베이스였는데, 일부분이 벽으로 막힌 교실로 변경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모두의 포디움 공간

학교는 더 이상 그 지역 커뮤니티와 동떨어진 '도심 속 외딴섬'이 아니다. 신길중학교의 2층 이상은 교실 등이 있는 학습공간이고, 1층은 학생 · 교사 · 학부모 ·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모두의 포디움 공간이다. 도서실을 중심으로 시청각실과 동아리실, 식당, 행정지원실, 컴퓨터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층별 조닝으로 시간대별 운영방안에 따라 적절히 분리 및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포디움의 복도와 실들 사이사이 배치된 크고 작은 중정들은 볕 쬐고 바람 쐴 수 있는 숨구멍들이다. 이곳은 아이들이 오손도손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담하고 아늑한 마당이지만 조경공간으로 실내와는 투명한 유리로 열려 있다.

ⓒ진효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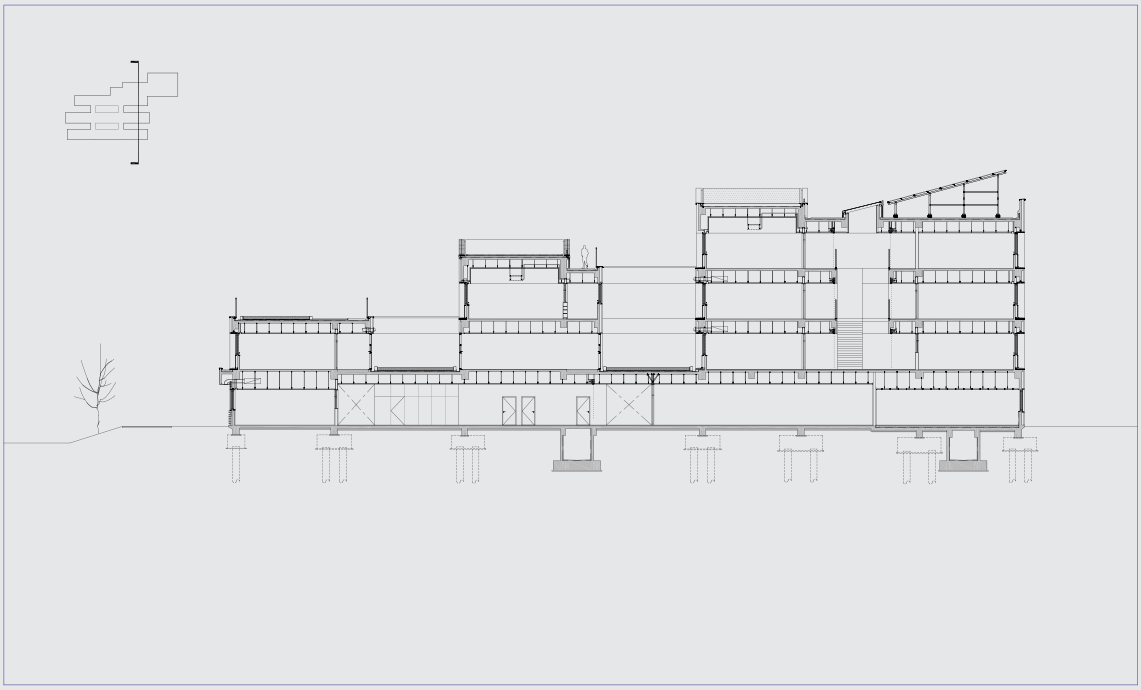
상 **교사연구실**
중 **일반 교실**
하 **다양한 입체적 동선**

ⓒ(주)이집건축사사무소

❶ 도서실 ❷ 행정실 ❸ 회의실 ❹ 교장실 ❺ 보건교육실 ❻ 보건실 ❼ 교무센터 ❽ 방송실 ❾ 식당 ❿ 컴퓨터실
⓫ 시청각실 ⓬ 교사휴게실 ⓭ 위클래스 ⓮ 동아리실 ⓯ 학부모실 ⓰ 관리실 ⓱ 중정 ⓲ 주차장 ⓳ 운동장 ⓴ 연결녹지

1층 평면도

ⓒ(주)이집건축사사무소



종단면도

ⓒ(주)이집건축사사무소

횡단면도

ⓒ건효숙

상 **시청각실**
하 **다목적강당**

설계

모든 공공건축물이 그렇지만 학교설계에도 관련된 사람이나 절차가 정말 많다. 설계 중 각종 현안을 풀어가며 느낀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교육계의 분위기와 달리 실제로는 의외로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이도 많다는 사실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이고 앞으로 공공건축물 발전의 긍정적인 신호이다.

물론 이견과 변경된 부분도 많았다. 삼각지붕이 있는 매스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 실내 교실의 천장도 당연히 박공으로 계획되었으나 높은 층고에 따른 교실 열환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평천장으로의 변경 이야기가 나왔다. 다행히 학계 건축환경연구실의 열환경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적합성이 확인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삼각지붕의 공간을 실내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박공천장 꼭짓점 높이를 3.6m로 당초보다 축소하였다. 아쉬운 부분이다.

학교설계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인 난간 높이도 점점 높아져 실제 설치는 학생들의 눈높이보다 높은 1.6m 이상에 달하게 되었다. 삼각지붕 매스의 지붕마감 역시 벽면과 동일한 점토벽돌 마감이었고,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삼각지붕 위로 올라가 걸터앉을 수 있는 재미도 있었지만, 공사 중 금속패널 마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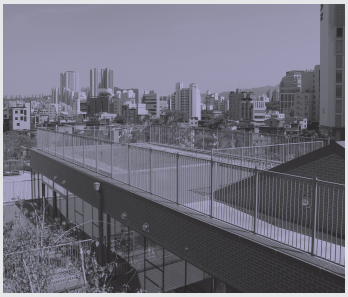
설계안을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인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설계의도 구현' 제도가 공사현장에서 설계자의 법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은 미미하지만 우리도 가능한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사 초기에는 공모심사 때의 우려처럼 공사비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설계안을 떠나서 당초 사업 초기에 책정된 기본 공사비가 턱없이 적었고, 발주처에서는 추후 공사를 시작하면서 추가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에 여러 난관이 있었고, 토공사 중 암반 출현과 부지후면 옹벽공사 등으로 그 규모가 더 커졌다. 발주처의 노력으로 다행히 추가 예산이 더 확보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 기존 원안의 설계의도는 준공시점으로 큰 틀에서 잘 구현되었다.

준공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건축물은 준공 후 사용자에 의해서 완결되는 동시에 또 진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사용자참여설계 발주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축학교의 경우 공사 준공에 임박해서 교직원이 발령되기 때문에 사용자참여설계의 여건이 안 된다. 신길중학교의 교직원들 역시 발령받은 후 낯선 공간구조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예상되는 부담감에 당혹스러워하던 모습과 기존과 다른 공간구조의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주)이집건축사사무소



상 옥상마당뷰
하 마을 같은 학교

열린 결말

하나의 공간이 설계되고 건축되어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자의든 타의든 건축가에게 일련의 전 과정에 걸친 동반자적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건축물에 담당 건축가를 매칭하여 준공 이후 건축 관련 총괄관리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간혹 논의되지만, 특히 공공건축물에서는 설계 이후 건축되고 사용자에 의해 정착되어 가는 경과에 반비례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다. 이는 종종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거나 또는 마스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 난개발로 증축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길중학교는 개교한 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다행히 구축된 학교공간은 열정과 애정을 가진 교직원과 학생들의 고민과 노력으로 진화 중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댄스연습실도 생겼고, 공용공간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소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도 진행되고 있다. 원설계자로서 그 즐거운 여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 어떤 공간구축의 완결과 진화는 사용자 노력의 결과이자 몫이다.

근래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핵심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주체가 되는 사용자참여설계이다. 과연 신길중학교의 건축적 의의인 '학교공간구조 유형으로서 새로움과 가능성'이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어떻게 안착될 것인가? 사용자 노력의 방향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으며, 새로움에 어떻게 반응해 나갈 것인가? 계획하는 변화를 통하여 학교공간은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 신길중학교 학교공간의 결말은 열려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정상적인 학교공간 이용의 정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획일적인 학교공간의 변신'을 위한 여정은 흥미진진하고 사뭇 기대된다.